

## **북측당국의 청산통보에 대한 개성공단 기업의 입장**

금일 남측기업과 관계기관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할 것이라는 조평통 담화를 접하고 참담한 심경을 금할 길 없다.

입주기업의 동의없이 북측당국의 일방적 청산 절차 진행은 기업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.

<2013.08.14 개성공단정상화합의서>와 <남북투자보장합의서>에 명시되어 있듯 남북정부는 기업의 투자자산 등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.

더 이상 힘없는 기업들만 나락으로 몰지 말고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희망의 끈을 결코 놓을 수 없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염원과 고통을 깊이 고려하고, 남북정부는 민간기업의 재산권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호소한다.

2016. 3. 11

**개성공단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**